



01 난이도에 관한 총평

(1) 평가원 code를 만들어라!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낮고, 올해 6월 평가원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점은 선지의 내용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 지문 난이도 ⇔ 선지의 난이도

선지의 매력도가 높아졌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때 선지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아졌다.

→→ 평가원 code를 만들어라!

-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해석력을 길러라!

지난 6월 모의평가에는 EBS 교재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EBS 교재에서 출제된 지문들은 비교적 쉬운 지문을 선택하여 무난한 문제로 변형 출제되었던 반면, EBS 교재 외의 지문으로 출제된 일부 문항 등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 단어의 수준과 구문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감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없거나, 선지에 사용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정답 찾기가 쉽지 않도록 선지를 구성한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 해석력을 길러라!

02 남은 시간동안 EB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EBS는 이제 EBS답게 봐야 한다.

(1) EBS 그러면 다 외울 것인가?

물론, 이런 능력이 탁월한 소수의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요원한 일이다. 다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2) 마지막 정리까지 남의 손에 맡길 것인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100점이라면 소위 말해서, 찍어주는 문제만 보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다른 사람이 찍어준 것은 결국 자신에게 “중요할 수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서 자신이 공부해야 할 것을 제대로 정리하라.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남의 말을 듣고서 “아! 이게 중요하니까, 별표를 그리고 무조건 외워야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아라. 중학교 때, 내신대비를 할 때는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바로 그 문제들의 출제자이셨지만 올해는 출제자가 불러주는 것이 아니다.”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것과 출제자가 아닌 사람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의 말이다. 중요하다는 것을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정리해야 한다. 남이 정리해준 것은 결국 남의 자료이다. 결국 시험장에서 답을 쓰는 것은 바로 당신의 손이다. 자신의 것으로 공부한 자와 남의 것만으로 공부한 자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생긴다.

최종 승리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라!

(3) 이제부터 [단권화]를 해야 한다.

올해처럼 지문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시험에서는 “한 번 정확하게 보는 것보다 여러 번 봐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시간” 인데 너무 많은 양을 여러 번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여러 번 보기 위한 자신만의 [단권화]가 필요하다.

❖ 단권화 방법

1) 바인더나 노트를 하나 준비한다.

2) ① 어휘, ② 구문, ③ 어법, ④ 나만의 EBS 로 TAP(탭)을 만든다.

3) EBS의 문제들은 어차피 변형되므로 그 문제의 정/오 여부는 상관없다.

4) 처음부터 빠르게 다시 보면서 “새롭거나 자신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들” 을 바인더에 정리한다.

- 주의사항

- 어차피 알고 있던 것들까지 너무 많이 써 놓으면 나중에 절대로 다시 볼 수가 없다.
-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하지 말자. 정말로 새로웠던 것들, 꼭 기억해야할 것들로만 정리를 하자

5) 어휘, 구문, 어법은, 많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 잘 몰랐던 또는 좀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만 정리하면 된다.

6) 나만의 EBS는 이렇게 한다.

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선별해야한다.

작년과 올해의 평가원 시험에서 EBS 반영지문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제의식이 명확해야한다.

- 다 읽었을 때, “그래서 뭐? 또는 결론이 도통 뭘지 모르는 것들” 은 출제되지 않는다.

→→ 독창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지문에 주목하라.

- 고정관념과 다른 지문
-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연구결과나 문제해결법이 있는 지문

→→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지문

- 글의 초반에 했던 말을 표현을 바꿔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지문

→→ 지문내의 특정한 단어 하나로 지문의 전체를 말할 수 있는 지문

- 지문 내의 keyword 하나로 전체지문을 떠 올릴 수 있게 하는 지문

→→ 어법/어휘 문제들 중에 주제가 명확한 지문

- 어법/어휘 문제는 보통 그 유형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글 자체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문에 주제의식이 분명하다면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② 출제 가능성이 없는 지문들은 한 번 읽어 보고난 뒤 과감히 버려도 된다.

→→ 단어가 지나치게 어려운 전문단어로 도배되어 있는 지문

- 고교수준 이상의 단어로 넘쳐나는 지문은 수능에서 단어 수준을 쉽게 바꾼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너무 심하게 어려운 단어가 나온 지문은 버려도 된다.

→→ 해설지를 여러 번 읽어봐도 앞뒤가 안 맞는 지문

-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만 담겨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BS의 문제들 중에는 원문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길이를 선택하다 보니 “하나의 주제 + 상관없는 말” 이 같이 들어있는 지문들이 있다. 이러한 지문은 버려도 된다.

→→ 많은 배경지식이나 숨겨진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문

- 수능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 (문과/이과/예체능/실업계) 학생들 중 어느 쪽에게만 유리하게 지문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모든 근거는 그 지문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가진 지문은 버려도 된다.

③ EBS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 그 문제의 문제를 맞힌 것과 그 지문을 이해한 것을 혼동하지 마라.

- 지문을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의 유형이 쉬워서 맞힐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그 문제를 맞히면 그 지문을 자신이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EBS

최종 승리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라!

- 는 변형되어 출제된다는 것이다. 문제를 맞혔다고 해서 그 지문을 다시 정리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 너무 작은 의미까지 다 신경쓰지 말고 “결국 그 지문의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에 주목해서 정리하라.
- 글감이 좀 어려워도 [해설지]를 참조해서 그 글의 중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변형이 되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정리해 가면서 [단권화] 노트에 그 문항의 번호들을 적고 그 이유를 적어두면, 수능 보기 바로 직전에 그 [단권화 노트]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손에 넣을 수 없는 자신의 “보물 1호” 가 되어 있을 것이다.

03 EBS만으로 충분한가?

대답은 [Yes and No] 이다. 충분한 사람에게는 충분하고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EBS의 지문을 혼자 볼 수 있는 구문력과 논리력, 그리고 기출 문제들의 정답 code들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EBS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 EBS의 지문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구문 해석력이 없다면,

시험장에서 자신이 외운 내용으로 지문의 내용은 아는데 (보기를 해석하지 못해서) 틀리는 일이 생긴다.

(2) 지난 평가원 시험들의 오답률을 보면 잘 알겠지만,

결국 EBS의 지문을 안다고 해서 정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은 알지만 결국 문제를 푸는 것은 자신의 논리력과 정답을 가르치는 평가원의 정답 code이다. 이 부분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3) EBS의 지문들로 수능을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EBS의 수많은 문제들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왜? 이게 답이고, 왜? 이게 오답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내용은 이해했는데 답만 틀리는 경우, 그래서 점점 답을 쓸 때 뭔가 망설이게 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 해결책은 바로, “기출” 에 있다. 외국어 영역에 기출문제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지만 올해처럼 문제의 기준들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평가원이 정답으로 요구하는 기준, 즉 평가원의 정답 code를 자신의 것으로 한 번 정리해서 자신감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